

# ‘安 신당’ 입지자 움직임 없이 민주 후보만 난립

## 광주 남구청장

최영호(48) 현 청장의 재선 도전에 전직 구청장과 전·현직 시의원 및 의원들의 도전이 거세다.

특히 한 접은 광주 다른 자치구와 달리 민주당 소속 후보들만이 난립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안철수 신당’ 성향의 입지자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향후 ‘신당’이 공식 창당되고, 중량감 있는 후보를 냄다면 선거 판도는 더욱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386’ 세대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된 최 청장은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 주민결정 행정 등의 ‘주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며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당선되는 등 풀뿌리 지방자치 전문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최 청장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에

서 처음으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자치경영 청의 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사 입대와 관련 ‘대규모 접포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이하 대규모 접포 조례)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어 임기 중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맞서는 후보로는 3선 남구의

바다 민심을 훔고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장병완 특별보좌역을 맡기도 했던 김 세무사는 남구의원 시절 백운동 휴먼시아 아파트 유치와 양립동 거점산학단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

## ■ 광주 남구청장 출마예정자



\* 후보는 아니다 순

## 현 구청장 재선에 전·현직 시·구의원 도전

### 신당 중량감 있는 후보 출마땐 판도 요동

원을 지낸 김만곤(56) 세무사와 3선 시의원인 나종천(70)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용권(63) 전 남구청장, 이철원(55)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입지자는 김만곤 세무사다.

그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따뜻한 남구’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을 해왔다.

김 세무사는 남구 구 도심권의 주택개발사업 추진, 민간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자영업자·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육성,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나종천 부의장 또한 지방선거 때만

되면 항상 구청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나 부의장은 남구의원(재선)을 거쳐 시의원(3선)을 거치면서 오랜 의정 경험활동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70대의 ‘고령’이라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북구 5 선거구에 출마해 광주시의원에 당선돼 광주시의회 부의장까지 지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자신의 주 생활권인 남구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남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지역민들의 법률상담 등을 해오며 인지도를 높여왔다.

오성타운 대표로, 전문 경영인 출신인 박용권 전 청장은 1995년 광주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민선 2기,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남구청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화신상호 신용증금과 불법 대출혐의로 수감되면서 중도 낙마하는 비운을 겪었다. 박 전 청장은 지역의 각종 봉사활동에 참석하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

## ■ 이슈&변수

### 백운동 신청사 대규모 접포 입점 쟁점

### 장병완 의원-강운태 시장 ‘입김’ 관심

차기 남구청장 선거전에서는 백운동 신청사 대규모 접포 입점 문제가 놓여졌다.

‘남구청사 이전’ 문제는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최영호 청장이 임기 중 봉선동의 남구청사를 백운동으로 이전하며 ‘남구청 백운동 시대’를 열면서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하지만, 청사 이전 과정에서 자산 관리공사와의 불리한 계약 조건, 대규모 접포 입대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이 여전히 ‘불씨’로 남았다.

남구청은 신청사에 대규모 상가를 입점시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진척을 못하고 있다.

상인들의 반발로 대규모 접포가 입점하지 못할 경우 신청사 입대로 수입이 주는데 따른 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조건으로 인해 신청사는 ‘월세 면’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 청장은 본격적인 선거전

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데 최

대한 역량을 모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 후보들은 별씨 신청사 문제로 최 청장을 ‘공격’하는 모양새다.

변수는 ‘안철수 신당’ 측의 움직임이다. 할당 선거 전에 ‘신당’이 창당될 경우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 판단은 무리다. 최근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위해 구청장을 구청장으로서 신청사에 대규모 상가를

미래비전 21 이장이 인선됨에 따라 남구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고 윤 이사장의 ‘애재자’로 불리는 서정성 광주시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다.

민주당 내 경선은 현재 지역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병완 의원의 ‘입김’과 오랫동안 남구를 장악해온 강운태 광주시장의 ‘입김’이 어떤 후보를 밀어 주느냐에 따라 달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던 최 청장이 또 강 시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현 구청장 3선 가도에 시의원들 거센 도전장

## 광주 북구청장

민주당에 송광운(60) 현 청장의 ‘3선 도전’에 맞서 조호권(53) 광주시의회 의장과 재선의 진선기(49) 시의원, 초선의 문상필(47)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공천제가 유지된다면 치열한 경선전이 예상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송 청장은 고위 관료로 출신답게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무난한 구정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청장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의 민선 5기 공약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고, 군형집행평가 전국 1위 등 민선 4 기와 5기에서 각종 평가를 통해 413 회 184명의 시상사업비 확보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금융인 출신인 조 의장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연 이어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부의장(5대 의회)과 의장(6대 의회)에 선출됐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약속대상 3회 연속 수상을 했고, 의장에 당선된 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지역민생 텁방 등을 해가며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조 의장은 ‘복지를 넘어, 함께 누리는 경제 공동체 북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 가능한 도심재생 ▲함께 누리는 경제 ▲나눔·공헌을 통한 희망의 복지 ▲▲이웃이 하나 되는 문화 ▲작은 공동체가 중심되는 구정 등을 구정의 주요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송 청장은 고위 관료로 출신답게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무난한 구정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청장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의 민선 5기 공약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렸고, 군형집행평가 전국 1위 등 민선 4 기와 5기에서 각종 평가를 통해 413 회 184명의 시상사업비 확보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금융인 출신인 조 의장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연 이어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부의장(5대 의회)과 의장(6대 의회)에 선출됐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약속대상 3회 연속 수상을 했고, 의장에 당선된 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 ■ 광주 북구청장 출마예정자



\* 후보는 아니다 순

### 공천제 유지땐 민주 경선전 치열 예상

### ‘安 신당’측선 ‘내일’ 실행위원들 거론

위한 1인 시위 등 지역 협연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고, 6대 의회에서는 1인 시위를 통해 광주 제2순환도로 교통카드 설치 등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진 의원은 특히 ‘진사모’(진선기)를 사랑하는 모임)와 ‘농사모’(농촌·이웃사랑 모임) 등의 단체 조직을 등에 업고 조직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광주 북구와 담양 일부 지역 통합을 통해 북구를 경제 차지 구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문상필 의원은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면서도 북구 미래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각종 토론회, 연구회 등을 활발하게 이끌며 구청장 도전을 준비중이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으로 선임된 곽복률(51) 광주·전남 민주언론연합 상임대표와 김병도(42) 전 북구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송 청장 등 민주당 후보군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지고

가깝게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조례를 중점적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는 또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제시한 지역재원조정교부금 22%를 23%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세원 1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으로 선임된 곽복률(51) 광주·전남 민주언론연합 상임대표와 김병도(42) 전 북구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송 청장 등 민주

당 후보군에 비해 중량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여서 향후 ‘신당’ 측의 새로운 인물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

곽 위원은 시민운동 경력을 내세우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연대 구축과 공정과 상생을 통한 활기찬 지역경제 발전,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삶의 보장되는 북구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북구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임을

내세우는 김병도 전 구의원은 주민중심 소공동체 추진과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구축,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 예산제 및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있다는 평가여서 향후 ‘신당’ 측의 새로운 인물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

곽 위원은 시민운동 경력을 내세우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연대 구축과 공정과 상생을 통한 활기찬 지역경제 발전,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삶의 보장되는 북구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북구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임을 내세우는 김병도 전 구의원은 주민중심 소공동체 추진과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구축,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 예산제 및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있다는 평가여서 향후 ‘신당’ 측의 새로운 인물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

곽 위원은 시민운동 경력을 내세우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연대 구축과 공정과 상생을 통한 활기찬 지역경제 발전,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삶의 보장되는 북구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북구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임을

내세우는 김병도 전 구의원은 주민중심 소공동체 추진과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구축,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 예산제 및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있다는 평가여서 향후 ‘신당’ 측의 새로운 인물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

곽 위원은 시민운동 경력을 내세우며 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연대 구축과 공정과 상생을 통한 활기찬 지역경제 발전,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의 삶의 보장되는 북구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북구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임을